3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48회〉

# 작은 것에 지면 큰 것도 지게 된다는 삶의 지혜 터득

이긴자 일대기와 논단

#### 9절: 감사하는 생활

1) 11년의 군생활 마감과 점점 가혹해지는 연단

#### 2) 사업을 시작하다 3) 이끄심을 받으며 은혜를 숨기는 생활

4) 영의 흐름을 깨닫다 5) 육적으로도 당할 자가 없어

# 2) 사업을 시작하다

6) 생활 전반이 신앙으로 매진

(지난호에 이어서)

처음에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 다. 종로5가에 가게를 차리고 우선 자 전거를 잘 타는 청년을 고용하여 서울 시내로 콜라, 사이다를 팔기 위해 나 갔습니다. 어느 주류 도매상회에 가서 "시온 콜라, 사이다를 좀 팔아보시지 요. 맛이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며 판 촉을 하였는데 주인이 콜라를 보더니 "이 새끼야, 이렇게 시커먼 것이 둥둥 뜨는 것을 사람 먹으라고 만들어서 상 품이라고 팔러 다니는 거야!" 하면서 따귀를 갈기고 면박을 주며 내쫓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일곱째 천 사는 죄송하다며 90도 각도로 절을 하 면서 속으로는 '나 같은 마귀새끼는 이 런 일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감사합니 다.' 하고는 자신을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 며 판촉을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그 매 맞은 집엘 가겠다고 하자 짐자전거 를 타는 고용인 청년은 "전도사님, 나 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면 또 맞을 텐 데요."라고 하니, "너는 내가 고용한 사 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앞 장 설 테니 잔말 말고 뒤에 따라와!"하 고 그 주류도매상으로 향했습니다. 고 용인 청년은 뒤에 쳐져도 한참 쳐져서 저 멀리서 자전거를 끌면서 슬금슬금 따라 오는 것이었습니다.

시 가지 않겠지만 일곱째 천사는 '나' 라는 것이 '개 같은 마귀새끼'인 것을 아는 고로 '너는 더 천대를 받아야 마 땅해. 가서 더 수모를 받아라, 이 마귀 새끼야.' 하고 마음의 싸움을 하면서 매 맞은 집으로 다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제 일곱째 천사를 때린 주인아저씨는 반색을 하며 반가 이 맞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 기도 자전거를 타고 장사를 다닌 시절 이 있다는 그 아저씨는 젊은 청년이 먹 고 살겠다고 장사하러 온 것을 안사면 될 터인데 괜히 사람을 때리고 구박까 지 했다며 지난 밤에 마음이 아파 잠을 못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괜찮습니다. 신 앙촌 콜라가 보기는 이래도 맛은 좋습 니다. 한번 잡수어보세요." 하면서 병 뚜껑을 따서 맛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어제의 그 기세등등했던 사람 은 미안했던지 콜라를 받아서 병 채로 단숨에 꿀꺽꿀꺽 마시더니, "야! 맛이 기가 막히군, 젊은 친구가 장사를 해 서 먹고 살겠다는데 어제는 내가 성질 이 못돼서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에 대 한 사과로 이 콜라를 팔아 줄 테니, 우 선 몇 상자만 가져오게."라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자 일곱째 천사는 "사 장님, 이렇게 큰 도매상에서 몇 상자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트럭 정 도는 하셔야지요."라고 하여 한 트럭의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 차떼기로 판 매가 되었으며 점점 판매망이 넓어지 면서 기존의 널리 알려진 칠성콜라와 사이다의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 습니다. 그러자 칠성회사 측에서 사람 을 보내어 일곱째 천사를 스카우트하 려고 보수는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칠성 에 와서 일 좀 해 달라는 제의를 해왔

그러나 일곱째 천사는 "내가 돈에 눈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집은 두 번 다 이 어두워 시온 콜라 사이다를 그만두 고 칠성 콜라 사이다 를 하게 되면 나는 배 신자가 됩니다.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 하겠습니 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칠성에서 온 그 사람은 "요새에도 선생님 같은 분이 있 다니 정말 감격했다." 고 말하는 것이었습니

### 김포 고향에서 농사 짓던 친구에게 앞길 을 열어주다

일곱째 천사는 제 과점만 하고 다방은 칠성에 양보를 하기 로 하였습니다. 대신 에 일곱째 천사는 칠

성 측에, "나는 별로 실력이 없고 내 친 구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며 친구 를 소개하여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두병찬'이라는 친구인데 일 곱째 천사가 중학시절 고학을 하면서 도 세 학생의 학비를 대주며 공부를 시 켰던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곱째 천사와 같은 김포 고 향에서 농사만 짓고 있었는데, 일곱째 천사께서 친구의 장래를 생각하여 친 구에게 "자네, 칠성사이다 회사에 취 직하고 싶지 않아?" 물으니, 그 친구는 "취직만 된다면 하지."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소개로 칠성사이다 회사에 취 직이 되는 당일로 곧바로 공장관리자 의 높은 직책을 맡고 일하게 되었습니

일곱째 천사의 친구가 중학교만 나 온고로, 일곱째 천사가 직접 친구를 데 리고 고등학교 교장을 찾아뵙고, "이 사람이 나이는 많지만 배우고자하는



칠성코라\_60년대 광고

고자 하니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 요." 하고 부탁하니, 교장 선생님이 쾌 히 승낙하여 야간학교를 다닐 수 있었 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야간고등학 교를 마치고 스스로 대학까지 야학을 해서 마쳤습니다. 나중에 일곱째 천사 가 구세주 이긴자가 되시어 영생의 역 사를 하실 때, 남모르게 물질적인 도움 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서울시내에서 신앙촌 콜라 사업을 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 셨습니다. 소사 신앙촌에서 예배도 못 보게 하는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그 당 시 최수영 전도사가 남대문 제단에 계 실 때는 남대문 제단으로 예배를 보러 갔으며 중부 제단으로 발령을 받고 가 면 중부 제단으로 예배를 보러 갔던 것 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 주지 않는 데 최수영 전도사는 일곱째 천사를 받 아 주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추 호도 욕심이 없었으며 하나님께 충성 열의가 강해서 고등학교 교과를 마치 하는 생활로 일관했으며 틈만 있으면

기울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 사랑을 받으며 늘 은혜 창파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 무 소중하기에 그 은혜를 쏟지 않고 간 직하기 위해, 소사 신앙촌에서 서울역 까지 약 40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서 거기서 또 중부제단까지 걸어가 곤 했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걸어 서 그렇게 갔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차 를 타고 온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최수영 전도사가 중부제단에서 세검 정 제단으로 이동되어 갔을 때부터, 일 곱째 천사는 새벽기도를 갈 때 오토바 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하고 경쟁 을 하면서 달리지만 항상 버스를 제치 고 달렸고 다른 차한테 뒤지거나 져 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새벽녘에 차가 뜸해서 그렇지 지금처럼 차가 많 았으면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한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덕소 쪽에 가다가 다 리 난간에 부딪치어 다리 밑으로 떨어 졌습니다. 그 다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는 것이었습니 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오 토바이를 타지 않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사고를 당한 그 다음 날에도 오토바이 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이렇게 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back)이 있기 때문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 고 하나님이 그 오토바이를 타도 사고 를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민 고 일곱째 천사는 속력을 있는 대로 놓 은 것입니다. 최수영 전도사가 세검정 전도관에서 도봉동 전도관으로 이동하 였을 때에도 일곱째 천사는 오토바이 를 타고 도봉동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오토바이를 타도 100% 믿고 달렸고 자전거를 타도 100% 믿 고 달렸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자 전거를 타도 버스를 따라 놨습니다. 자 전거 페달을 밟아도 버스를 따라 놓을 정도로 밟았으며 매사에 이렇게 이기

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천사는 평생을 살면 서 무엇을 해도 지고는 못사는 성품 이었습니다. 보통 세상살이를 할 때에 조그마한 것을 지게 되면 큰 것도 지 게 된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 던 것입니다.

## 3) 이끄심을 받으며 은혜를 숨기는 생활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기막힌 사 정을 알고는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를 타도 눈물이 흐르는 고로 옆 좌석에 앉은 손님이 "부모님이 돌아 가셨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 항상 버스를 탈 때는 맨 앞쪽 운전석 맞은 편의 좌석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 나 운전수까지도 "필시 부모님이 돌 아가신 모양인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 람이고 산 사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우세요."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럴 때면 할 수 없이 버스 에서 내려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곤 했 습니다.

서울 시내를 다니다가도 하나님의 곤고하신 사정과 감사함의 은혜가 사 무쳐 뼛골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근처 다 방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우는 것이었 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오세요. 손님 이 기다립니다."하고 다방 레지가 문 을 두드려서 나오면 "아니, 또 이 아저 씨네......" 하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또 다른 다방 화장실로 옮 겨가서 울었는데, 들어갔던 다방에 가 면 "이 아저씨 또 온다."고 못 들어오 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대문로 중구 필동을 통하 여 남산으로 올라가 숲이 많이 우거져 인기척이 없는 곳을 찾아 거기서 밤새 도록 통곡을 하다가 내려오곤 하였던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第十四

그러면 석존은 왜 미륵부처님께 귀의 하는 사람이 대단히 드문 공덕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석존께서 3000여년 전에 벌써 설하신 불교의 종지가 생로병사 (生老病死)에서 벗어나 일체중생이 모 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인 류가 갈구하던 영생의 법을 설하기 때 문에 이 진리의 법을 듣고 깨닫는 이가 지금까지 인류가 소망하던 영생의 복. 즉 불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는 것입니다.

# 편견과 아상을 떠난 마음\_(2)

世尊 是實相者 卽是非相 세존 시실상자 즉시비상 是故如來說名實相 시고여래설명실상 世尊 我今得聞如是經典 세존 아금득문여시경전 信解受持 不足爲難 신해수지 부족위난 若當來世後五百歲 其有衆生得聞是經 약당내세후오백세 기유중생득문시경 信解受持 是人即爲第一希有 신해수지 시인즉위제일희유

세존이시여, 이런 사실의 모습(석존 이 부처모습)이라 함은 곧 (부처의) 모 습(相)이 아닌 것을 여래(석존)께서 말

씀하시기를 실제 모습이라고 부른 것 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 은 경전을 듣고서 믿어 알고 받아 지니 는 것은 족히 어려울 것이 없지만, 만 약 돌아오는 세상에 후오백년(後五百年 =3000년)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서 믿어 알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바로 제일가는 (복과 덕을 갖춘) 매우 드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해석] 그래서 수보리는 석존의 말 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이제는 의혹 이 없지만, 다가오는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이 같은 말을 얼마나 믿을 것이며, 또 이같이 석존이 부처가 아니라는 사 실을 믿어서 안다면 미륵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기가 쉬우므로 미륵부처님 을 만나면 성불할 수 있는 최상승의 법 문을 듣고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 에 수보리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드물 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존이 수보리에게 언제 이 말씀의 진실이 밝혀지겠는가에 대해 비 밀하게 알려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수보리는 "만약 돌아오는 세 상에 후오백년(後五百歲)에…"라는 말 씀이 있는데 이런 단어 때문에 현재의 불교를 가르치고 수행한다고 하는 스님 들이나 불교를 배우는 분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25〉

즉 이 금강경의 《제6 정신희유분(正 信希有分)》에서 석존이 후오백세(後 五百歲)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말하는 후오백년도 그와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국불 교에서 쓰이는 불기(佛紀)인 남방불기 (南方佛紀)는 2563년을 말하고 있지만 능엄경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불기는 벌 써 3000년이 훨씬 넘고 있으며, 혹자는 인도의 관습상 숫자의 개념에 대해 밝 지 못하기에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다 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영국에서 인도를 통치하는 가운데 찾아낸 사료로 불교를 연구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지 만, 이에 대해 영국과 한국의 불교는 그 연구하고 정진하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상(佛像)의 유래▶ 2019년은 불기(佛紀) 3,046년이된다 "석가세존 은 昭王(소왕) 26년 갑인(BC 1,027년) 4월 8일 탄강하시고 그 후 1천년이 지 난 後漢(후한) 明帝(명제) 영평 3년 경 신(서기 60년)에 조선(진단국)의 중생 들과 인연이 닿아 또 다시 지상에 재림 (再臨)하셨습니다. 〈석보상절 제6〉 세 존께서 象頭山(상두산)으로 가시여 용 과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실 때 부처님 의 나이는 32세이었으며 穆王(목왕) 6 년 을유(BC 996)년이었다. 부처님의 아 들 羅雲(나운)이 출가할 때 부처님의 연세는 33세이고 목왕 7년 병술(BC 997 년)이였다."\_ 출처: https://cafe.naver. com/woojesunwon/2201 우제선원(신 선좌공도,의통공부방) [작성자 혜산]

영국은 인도를 200여년 가까이 식 민통치를 하고 그 와중에 인도의 불교 의 사료를 획득했다지만, 현재 인도라 는 큰 나라로 통일된 것은 근세에 영국 의 통치로 인한 것이며 실제 석존 당시 부터 그 뒤 300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흐 르면서 인도라는 대륙에는 수많은 나 라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말씀 그 대로 전쟁의 역사를 치르어 온 나라며, 그로 인해 인도 전역에 있던 불교 사원 은 계속 파괴와 약탈에 의해 불교의 경 전이 온전하게 관리되지 못했고, 또한 석존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의 국교(國 教)와 같이 된 힌두교 역시 불교에 대 해 직·간접적으로 박해를 하고 불교사 원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불교는 중국이라는 대륙을 통해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 학 자들은 불과 1300여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왕족들의 왕족불교가 되기 이전 벌써 민간 신앙 속에 불교가 들어와 있 었으므로 더 오래 전에 이미 불교가 들 어왔으며, 또한 한국의 불교는 영국이 나 인도에서처럼 단순 연구 종교가 아 닌 바로 삶의 신앙과 체험신앙 그리고 수련신앙으로 장구한 세월을 이어 왔 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영국이나 인도 에서 연구하는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그 믿음과 방대한 경전의 보유 또한 다 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국이 인도를 식민통치 하면 서 얻은 불교 자료는 불과 얼마 안 되 는 불교 자료이지만, 위에서 밝힌 대로 한국은 세계에서 자랑으로 꼽는 팔만 대장경(八萬大藏經)이 온전하게 전하 여 내려오고 있답니다.

바로 이 대장경을 근간으로 하여 일 본(日本)에서는 신수대장경(新修大藏 經)을 만들었고 한국의 불교가 기복불 교(祈福佛教)로 흘러갈 때 일본은 신 수대장경을 전산화하여 사실상의 세계 표준 대장경으로 안치시키는 데 성공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영국은 겨우 불교 의 겉모양만 보았지 실제 불교가 뭔지 를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불 교 역시 다름이 없는 것은 석존의 경전 을 조작하고 왜곡하여 대중에게 거짓 의 조작된 경전을 보여 주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 듯이 지금의 불교가 석존의 경전을 조 작하고 있다면 참다운 불교가 아닌 석 존의 불교를 흉내를 낸 사이비(似而 非)의 불교가 된 것입니다.\*